

성모 승천: 하늘에 오르신 마리아?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광복절인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한편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이날을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기념하는 성모승천대축일로 지낸다.

1950년,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교황령,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Munificentissimus Deus)』을 통해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는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셨음”을 선포하셨다. 성모님의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성모님께서서는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기에 승천(昇天 : Ascension)하셨지만,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하늘로 올라가신(Assumption) 것’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예전에 성모 몽소승천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몽소(蒙召 : 입을(덮을) 몽, 부를 소)는 부르심을 입은 것을 의미한다.

성모님의 육신과 영혼의 승천에 관한 기록이 신약성서를 비롯한 초대 교회의 문헌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모승천을 믿을 교리로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는 이에 대해 성모님 자신의 권한과 능력 때문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성모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거룩한 동정녀의 승천은 당신 아들의 부활에 특별히 참여한 것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앞당겨 실현한 것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966항). 또한 성모님의 승천은 성모님께서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 전구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

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신다” (교회헌장, 62항).

성모님의 승천은 단지 성모님 자신만의 영광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된 신앙의 모범으로서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승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언젠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하여 예수님의 천상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희망의 표지인 것이다.

지금도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당신의 아드님께 전구해 주고 있다.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 역경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 올 때 성모님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 보자.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전구자로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 주고 있다.

[2015년 10월11일 청주주보, 김대섭 바오로 신부(복음화 연구소장)]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랜다 케비나/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레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욱 세레나/(건강)
-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율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김재야 영혼을 위하여	배율리안나 율리아노가정	연	김중훈 요한의 영혼을 위하여	김화선 아네스
연	케비나의 영혼을 위하여	3구역원 일동	생	셋별의 모후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진 엘리사
연	미카엘의 영혼을 위하여	3구역원 일동	생		

자	전 레 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10월20일(화)	연중 제29주간 화요일	오후 7 : 30	교 무 금 주일헌금	\$ 1,925.00 \$ 1,095.00
10월21일(수)	연중 제29주간 수요일	오전 7 : 30	토요 특전 교구 원 캠페인	\$ 68.00 \$ -
10월22일(목)	연중 제29주간 목요일	오후 7 : 30	성소후원금 사회 복지 후원금	\$ 75.00 \$ 70.00
10월23일(금)	연중 제29주간 금요일	오후 7 : 30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	\$ 48.00 \$ -
10월24일(토)	연중 제29주간 토요일	오후 7: 30	사제관 건축 합 계	\$ - \$ 3,281.00
10월25일(일)	연중 제30주일	오전 9 :00 오전 11:00	미사 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1~12 김희숙 7~8월 이상인 9~10월 김창영 장대석 9~12월 진엘리사 10~12월 장애익 9월 김운태 김초지 10월 윤재경 우순이 최이주 안병훈 박용생 지복원 김숙자 이상기 허용희 안선미 박정희 최재진 이돈수

(공동체 소식)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1구역(FE), 2구역(FO), 3구역(PC), 4구역(NH), 5구역(GF), 6구역(RC), 7구역(RT), 8구역(NC), 9구역(EG), 10구역(DW)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8시)
- ◆ 문 의 : 류승교 바오로 전교부장(916)708-6102

2. 봉성체(병자 영성체) 신청

- ◆ 주신부님/ 셋째 주 -부제님 ◆ 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3. 아프리카 잠비아 어린이 돕기 도서 모집

- ◆ 영문으로 된 책이면 무슨 책이든 도네이션 받습니다. (10월 31일까지)
- ◆ 주체 : 북가주 사제 협의회

4. 10월 목주성월 각 단체들은 목주기도로 봉사해주세요

날짜	봉사자	지향	
18(일)	사목회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하여	영광의신비
20(화)	사랑의 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환희의신비
22(목)	구세주의어머니	교황님의 영육의 건강을 위하여	빛의 신비
23(금)	평화의 모후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고통의신비

5. 성시간 및 성령찬미미사

- ◆ 10월 30일(금) 저녁 7시 30분
- ◆ 매월 성시간을 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6. 70's & 80's 디스코 댄스 파티

- ◆ 일시 : 11월 7일 저녁 7시~10시
- ◆ 참가비 : Pre ticket \$20 each, At the door \$30 each
- ◆ 간식제공, 베스트 의상상 추첨/문의:서메리916-271-3671

7. 위령의 날 묘지 미사 : 11월 7일(토) 10시 30분

- ◆ 장소: 65th 성당 묘원:6700 21st AV Sacto (미사준비, 연도책)
- ◆ 위령미사 신청은 전례부장.사무실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8.성모 신심 미사 -11월 14일 (토) 10시 30분

- ◆ 미사 후에 안나회 요셉회 있습니다

9.정혜 엘리사벳 가을 음악회 11월 1일(일) 저녁 6시 성당

- ◆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성가대에서 교우들과 친척/친구들을 모시고 작은 음악회를 마련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8. 고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 장순욱 스테파노(장선영스콜라스티카)의 부친故장성석 미카엘 형제님을 위한 연도가 20일(화) 저녁미사 후에 있습니다.

10. 새크라멘토 교구 The One Campai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자는 총 94명입니다

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	\$40,495.00

11. 성전 건립기금 및 목주기도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수산나 \$2,000	\$65,634.21

지난주 목주기도 봉헌	총 누 계
2,475단	275,748단

12. 감사합니다!

- ◆ 이번주 점심봉사 : 6구역 보조 : 안나회, 안병훈 스테파노
- ◆ 다음주 점심봉사 : 성령기도회 보조 : 김도미닉 지살로메 박재래 마리아
- ◆ 김동현 미카엘 형제님이 한글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adapters를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 & 교구소식

회합 : 18일(일) 미사 후 성당

- ◆ Pr 간부님들은 참석 바랍니다.

모임 안내

- 리노공소 : 18일(일) 오후 2시 30분 출발
- 사목회 : 10월 23(금) 6시 이주순 율리오 맥 916-824-2581 3035 Orchard park way loomis Ca 95650
- ME 모임 : 25일(일) 9시미사후 Ecko Lake 산행
- ◆ 문의 : 김 안셀모 김 프란체스카 대표부부
- 연령회 모임 : 25일 교중미사 후 12시 30분
- ◆ 장소: 성 마태오 방 점심제공
- ◆ 중요안건 토의가 있으니 연령회원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 도서관 봉사자 찾습니다 - 일요일 미사직후 12-1시 한달에 한번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 연락 전 스틸라 자매 916-804-1403

주일 /한글학교

- 재능기부 하실 분 모집 합니다
- ◆ 서예, 민속놀이, 사물놀이 동양화 고전무용 등등
- 연락처 : 오 크리스티나 (한글학교 교장) (213)700-0051
- 주일학교 Field Trip Cool pumpkin Dixon
- ◆ 10월 24일(토) 9:30분 성당에서 출발
- ◆ 문의 : 이미경 아네스(530)906-0265 annleem@gmail.com

전례 봉사	10월 18일	10월 25일	11월 1일	11월 8일
해 설	임상일 (프란치스코)	이혜련 (데레사)	김은선 (제노베파)	김은영 (폴리나)
1 독 서	진엘리사(엘리사)	안강순 (앤젤라)	이순자 (요안나)	이순자 (요안나)
2 독 서	임정남(실비아)	이서향(미카엘라)	양방림(베로니카)	양경림 (베로니카)
복 사	윤성훈(가브리엘) 송돈희(요셉)	양경민(안드레아) 류승교(바오로)	김재열(스테파노) 이대원(베드로)	김민규(다미아노) 윤여훈(로마노)
/기도/청소	5GF~6RC	5GF~6RC	7RT~8NC	7RT~8NC
헌금 위원	임상일 송돈희	이나숙 정의주	고공자 임그라시아	장석자 고원석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 용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 Cirt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제인 안 변호사 파산법 전문 (, 사업빚,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Exigo ITSolutions 컴퓨터 수리 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 support@exigoits.com web add.:www.exigoits.com ☎ (916) 287-1439</p>	<p>1.2.3AutoBody/정비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말날 성당에서도와드립니다 연 락: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 사 회 복 지 부</p>	<p>ShoGun Sushi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길성진 ☎(916)483-1224</p>	<p>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danleelaw@gmail.com ☎(916)922-0107</p>	<p>최병엽공인회계사 Paul Choi&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신세계 여행사 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688-0157</p>	<p>한국위성방송 한국방송(MBC, MBC Everyone,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CBSBadook)+ (Direc TV) "무료설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지도 (Creative Art Class) 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9</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올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p>	<p>East WestTravel (동서여행사) 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지나 ☎ (916) 362-0260</p>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승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2:1-5 제2독서 로마서 10: 9-18 복음 마르코 28:16-20

화답송 : 시편 98(97), 1, 2-3ㄱ, 3ㄷ e-4, 5-6 (◎ 2또는 3ㄷ e)

Pine



화답송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매력을 통한 선교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우리는 전교라는 용어 외에도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때로 이 두 용어의 사용에 혼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교주일이라 말해야 할지 아니면 선교주일이라 말해야 할지, 전교사라 불러야 할지 아니면 선교사라 불러야 할지 헷갈립니다. 전교는 복음을 널리 전한다는 말이고, 선교는 라틴어 파견하다(Missio)에서 나온 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파견되었음을 가리키는 데, 이 두 용어는 사실상 동의어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교구 '선교의 해'나 파리외방 전교회처럼 고정된 용어들은 그대로 따라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1독서인 이사야서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종말에 앞서 메시아가 지상을 통치할 기간에 낮은 언덕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전 밖의 시온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돈이라는 뜻을 가진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 때에는 모두가 한 하느님의 통치를 따를 것이기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무기는 필요가 없어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행복감을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군비경쟁에 소모하는 비용을 복지사업에 쓴다면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도,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없다면 작은 배 한 척에 의지해 대양을 건너 피난하다 목숨을 잃는 세 살배기 어린 난민도 없을 것입니다. 건물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새겨놓은 국제연합기구(UN)가 꿈꾸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의 통치를 따라 그들 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온 세상이 하느님을 우러러 찬양할 그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널리 알려 모두가 그분을 알아보게 해야 합니다. 오늘 2독서인 로마서의 말씀처럼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이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통치 의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견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는 신자들이 예상 밖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신자 중 약 70% 정도가 마음의 평안을 신앙의 목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번거롭고 언제나 거부당하거나 혹은 무안을 당할 수 있는 선교활동은 본인들의 신앙 목적과 상충되는 것으로 여겨져 기피하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간접선교와 직접선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령 회원들의 상가 봉사나 레지오 단원들의 선행 등이 간접선교에 해당하고, 가두선교나 방문선교 등의 활동이 직접선교에 속합니다. 모든 선교활동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신앙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선교는 개종강요가 아닌 신자들의 매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가장 매력적일 때는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일 것입니다.

2014년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우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에 반해 미사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줄어 1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사 참여는 하지 않아도 레지오 활동을 하고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우니 실질적으로 쉬는 교우가 80%에 육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쉬는 교우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영덕 본당 함원식 이사야 신부

바람 속의 주님

내가 찾아 헤매던

당신은 그분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당신이 그분인 것을

나 이제 다시 헤매이지 않으리

클레멘스 · 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 · 화가



장종지

--	--	--